

최근에 와서 금연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흡연자가 있을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누구라도 담배를 피울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흡연자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도 일종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쳐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나 노약자에게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임신한 몸의 여성이 담배를 필때에는 태아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담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를 핀다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많은 공공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에 대한 존중을 위해 공공의 장소에 흡연실을 만들어 주어야겠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흡연자나 비흡연자라도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어 합의점을 모색한다면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존중할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 역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어떠한 편견과 이기주의가 없는 사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